

적멸보궁 용연사
2017.05 통권 제2호

비슬산 용연소식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 용연사에서 한 해의 가피와 복덕구족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기원 드립니다.

월간 용연 통권 제2호 / 발행인 무위능도 / 편집장 김도우 / 사진 한경자 / 발행일 2017년 5월 17일 / 발행처 용연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용연사길 260 전화 (053)616-8846~7 팩스 (053)616-0408

일주문 一柱門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 해체 문제를 불교의 가르침으로 극복하기 위해 용연사와 btn 불교TV가 〈용연사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가족이 부처님입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가족들이 합심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고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부터 위기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만이 자비로운 불보살님의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괴리, 부부간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황혼이혼이 급속하게 늘어나며 부모 자식 간 부양을 둘러싼 소송까지 급증하는 세태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고민과 갈등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나 잠시의 휴식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고민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지혜와 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맞아 감로의 법문으로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공부에 지친 청소년도, 장시간의 노동에 진이 빠진 남편도 기꺼이 다시 사찰을 찾을 것입니다.

가족수계법회에는 시부모와 자녀가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가족의 화합뿐만 아니라 자녀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법회 봉행을 통해 불심도 증진하고 가족애도 돈독히 하며, 특히 자녀들의 예절교육과 마음공부를 통한 가족 간에 일체감이 생기고 대화의 장이 생겨 도덕교육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가족수계법회는 가족 간 종교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공통 관심사가 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정의 울타리가 튼튼하게 합니다. 이는 불교 신앙의 범위를 넘어 사회 안정에도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용연사 가족수계법회 안내

- 일 시 불기 2561(2017)년 5월 28일(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용연사 적멸보궁
- 계 사 전계대화상 무봉 성우 큰스님
- 동참비 무료 (단, btn 불교tv 붓다회 회원동참 신청서 작성)
- ✳ 동참하실 불자님께서서는 미리 종무소에 준비된 가족수계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법명과 가족수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족수계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가족들에게 전계대화상 석성우 큰스님으로부터 가족수계증을 받으시며 가족별 큰스님과 단독 기념촬영을 해드립니다.





비슬산 메아리

화마를 잠재우는 단오 용왕제 龍王齋

구미래 具美來

불교민속학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음력 5월 5일 단오端午는 여름기운이 왕성한 데다 양수陽數 5가 겹쳐 연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다. 마을과 사찰에서는 이날 용왕에게 제를 올리거나 소금단지를 교체하면서 화기火氣를 잠재우는 전통이 있다. 전통가옥은 나무나 흙과 같은 자연재료로 짓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화재가 큰 재앙이었다.

따라서 물을 다스리는 용이 능히 불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아 양기가 왕성한 단오날 용왕제를 지내는 것이다. 용왕제는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기우祈雨, 기풍祈豊과 같은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아울러 소금단지를 마당에 묻거나 들보에 올려놓기도 하는데, 이는 바다를 상징하는 소금이 불을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통도사에서는 매년 단오날이면 사부대중이 모여 용왕제를 지내고, 대웅전에서부터 공양간에 이르기까지 전각마다 소금단지를 교체하는 의식이 전승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도사 광명전 내부의 천정 밑 도리에는 화마를 물리치는 내용의 항화마진언抗火魔眞言이 사방에 묵서로 적혀 있어 주목된다. 임진왜란 때 통도사의 모든 건물이 불탔으나 유일하게 대광명전은 화재를 비껴갔는데, 그 이유가 화마를 막는 계송 때문이라 여겨 모든 전각과 요사에 소금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사찰에서 용왕제를 봉행할 때면 각종 공양물을 차려놓고 「용왕청龍王請」 등을 염송하면서 용왕기도를 올린다. 기도를 마치고나면 소금단지를 대웅전 앞마당에 묻거나 전각마다 들보에 올려두었던 소금단지를 내리고 새 소금으로 교체하면서 다시 한해의 무사를 기원하게 된다.

이처럼 용왕제를 지내고 소금단지를 교

체하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정성이라면 불법을 지키는 화엄성중華嚴聖衆의 가피로 능히 화마를 없애고 도량을 청정하게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화엄성중 가운데는 물을 다루는 용왕도 있을 것이고, 화산을 제압할 산신도 있을 터이며, 사부대중의 정성에 감응하는 천지신명도 모두가 포함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불을 더욱 조심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스님들은 단오날 처방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게 새겨야 할 것은 ‘소금의 의미’라고 말한다. 사찰에서는 의식을 마치면서 신도들에게 일일이 소금봉지를 나누어 주고 있다. 이때의 소금은 가정의 재앙과 화재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마음 속의 화마를 저마다의 소금으로 누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아버지 정반왕이 돌아가셔서 화장할 때, 불타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슬퍼하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고쁨이고 공췌이고

무아無我이다. 견고함이 없어 허깨비와 같고,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물 속의 달과 같다. 생명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 불이 뜨겁다고 보지 말라. 모든 욕망의 불은 이보다 더 뜨거우니, 너희들은 의당 생사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일에 힘써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할 것이다.”

주검을 태우며 타오르는 불꽃보다 집착과 욕망의 불꽃이 더 무서운 것임을 일깨운 것이다. 마음을 들끓게 하는 탐욕과 분노의 어리석음의 불꽃… 그 번뇌의 불꽃을 잠재워 본래 청정한 우리의 마음자리를 찾아가자는 의미가 단오날 소금에 담겨 있다.

용왕제는 민간에 점차 사라져가는 단오문화를 사찰에서 전승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음력을 근간으로 한 전통문화를 사찰에서 전승해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음력을 근간으로 한 전통문화의 계승주체가 되어온 불교의 특성이 부각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龍

용연사 단오절 용왕제 안내

비슬산 용연사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 단오절을 맞아 사찰의 화재를 예방하고 액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오절 용왕제’를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장소** 불기 2561(2017)년 5월 28일(일요일) 오후 2시, 용연사 입구 용연지 주차장
- **동참비** 3만원(방생비 포함)
- **설관시주 받습니다.** - 소금단지 1단지당 50만원

용왕제단에 올려진 소금단지는 각 전각마다 기둥 위에 1년 동안 모셔 놓았다가 내년 용왕제 소금단지와 교체합니다. (교체된 소금단지는 설관시주자님께 돌려드립니다.)

- **행사내용** 범패의식에 의한 용왕제 의식 및 소금정화 의식, 방생의식

※ 특히 용왕제를 마친 후 용연지에 물고기를 방생하는 방생의식을 거행하며, 용왕제단에 올려진 소금단지를 사찰로 모셔와 각 전각마다 기둥 위에 소금단지를 모시게 되며 동참하신 모든 불자들에게도 천일염 소금봉지를 하나씩 나누어 드려 각 가정에 모셔두거나 묻어두면 1년 동안 화재와 액난을 방지하게 됩니다.



여시아문 如是我問

용연지와 용연사의 전설

편집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에 ‘용연지’라는 못이 있었다. 이 못은 지금까지 그 마을 사람들의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못이 꽤 깊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주민들은 이 못에서 부족한 물을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 못 주위에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매월 정월 초에는 못에서 제사를 올려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평온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중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적의 침입이었다. 못의 반대편에서 쳐들어 온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방어책을 세웠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고 공격을 준비하였다. 또한 외적을 막아내기 위해 전방에 나가 외적과 직접 맞서 싸울 주민들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라 선뜻 나서지 않았다. 외적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마침내 일곱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발 벗고 나섰다. 이 청년들의 목숨을 건 전투 덕분에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 일곱 명의 청년들은 모두 못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그 맑고 푸른 못의 색깔이 전사한 청년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비통한 상실감으로 침통한 나날들을 보냈다. 세월이 흘러 일곱 명의 청년들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나자 그 못의 물이 이유 없이 계속 마르기 시작했고, 결국은 바닥이 거의 드러나게 되었다. 그 못은 마을 주민들의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그 일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민들은 일곱 명의 청년들이 한이 남아 이 못을 떠돌아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영령을 기리는 제사를 매년 크게 치러주었다. 그랬

더니 그 이후로는 신비롭게도 못의 물이 다시 불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언제부터인가 그 못에서 소용돌이가 일더니 일곱 마리의 어린 용이 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용들이 커져갔다.

특이하게도 이 마을에 가뭄, 홍수, 화재, 기한 등 인간 능력 밖의 재앙이 생겨 힘들 때마다 이 용들이 나타나 해결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이 못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또다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천 년이 지나자 용이 승천할 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이 일곱 마리의 용들이 먼저 올라 가려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여 못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 그 싸움 중에 네 마리의 용은 무사히 승천을 했지만 세 마리는 끝내 올라가지 못하고 그 못에 남아 계속 다투게 되었다. 마을의 우환을 관장하던 용들이 승천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느라 마을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그해 농사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들고,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아 목숨을 잃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다시 먼 바다로 나가 이런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구해달라고 용왕님께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용왕은 그의 아들을 지상에 내려 보내 세 마리의 남은 용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다. 결국 세 마리의 용은 못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후 마을 주민들이 죽은 용을 위해 제사를 올려주었다. 이런 용을 위한 제사의 풍습은 매년 이루어지면서 전승이 되어 왔고, 그 결과 지금의 용연사라는 절이 세워지게 되었다. 용연사라는 절의 이름은 못에서 죽은 용의 혼을 기리기 위해 제사 의식을 올리는 데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못을 용의 못이라는 의미에서 용연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禮



용연소식

연등
행렬

소원풍등 날리기



연등행렬



연등행렬

부처님
오신날

성문 큰스님 법어



관육의식



봉축 법요식



육법공양



봉축 축하공연



배식봉사

정기법회 및 기도안내

㉔ 적멸보궁 기도

- 음력 보름인등기도 및 포살법회
- 3일, 7일, 21일, 100일, 1년 기도, 수능백일 기도

㉔ 극락전 기도 안내

- 음력 초하루 기도 및 법회
- 3일, 7일, 21일, 100일, 1년 기도
- 연중기도
정초산림기도, 입춘 및 삼재소멸기도, 정초 방생법회, 칠석기도, 백중 영가천도 49일 기도, 동지기도
- 그 외 기도
생일축원, 영가를 위한 49재, 기제사, 천도재, 설, 추석 명절 합동차례, 영단위패 봉안

㉔ 일만(日萬)관세음보살 염송법회

관세음보살 명호를 일만 번 염송하는 법회(약 4시간 정도 소요)

- 일 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 저녁 6시 ~ 밤 10시 30분
- 장 소 유정당 관음전

공덕 지으신 분들

2017년 4월 1일 ~ 5월 10일

■ 인등

허상일, 황기원, 김종듬, 고재광, 윤천수, 권춘화, 김미경, 이정란, 장철성, 송미열, 배상희, 안남규, 조한식, 안상동, 김창권, 이대언, 임영선, 최흥수, 공종근, 이종규, 김동진, 김인갑, 오세형, 이창민, 김성현, 김규민, 이만환, 김사묵

■ 기도

강종환, 이충일, 이상이, 박영철, 김찬수, 장철성, 윤동철, 박재관, 홍혜실, 고재광, 서정은, 채학수, 윤한규, 김진달, 서현동, 김쌍익, 권철현, 박상호, 김종철, 구본우, 김재규, 이덕우, 김해수, 임창수, 박천준, 박정갑

■ 대중공양

홍혜실, 박봉출, 박금석, 강종환, 이금순, 김남실, 양기철, 이희갑, 조만석, 조경환, 배상희, 김연채, 이현남, 구본우, 권용섭, 송재규, 임경대, 백대련화, 석진갑, 이 건, 문정연, 박영철, 추상호, 박천수

